

특별전 감상 가이드

# 신란 스님과 정토진종

## 신란 (1173-1262)

국보 신란 성인 초상(‘안조 어영’ 부분) 부분  
찬·뒷면 글: 렌노 슘  
무로마치시대 15세기  
교토 니시혼간지 절 소장  
전시 기간: 3월 25일-4월 2일



정토진종을 연 신란 스님.  
토라린과 함께 알아보자!



교토국립박물관 공식 마스코트  
토라린

특별전 <승려 신란-정토진종 개척자의 생애와 그 보물-> 기간: 2023년 3월 25일-5월 21일 장소: 교토국립박물관 헤이세이 지신관  
감상 가이드 편집: 교토국립박물관 교육실 감상 가이드 번역: 교토국립박물관 기획실 발행: 2023년 3월 25일

# 연보로 알아보는 신란 스님

헤이안시대

1185년

세는 나위

1173년(1세) 교토에서 태어나다.

1181년(9세) 출가. 히에이잔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하다.



중요문화재  
신란 전기 두루마리그림  
[혼간지 쇼닌 덴네, 고에이본, 상권 본] 부분  
가쿠노 슘, 고라쿠지 엔자쿠 그림  
남북조시대 고에이 2년(1343)  
교토 히가시혼간지 절 소장  
전시 기간: 5월 2일-5월 21일

1201년(29세) 히에이잔 산에서 내려와 쇼토쿠 태자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교토 롯카쿠도 절에서 100일간 수행, 꿈에서 구세관음으로부터 고지를 받다. 호넨 스님의 제자가 되다.

모든 중생을 똑같이 구제하고자 하는 아미타부처의 가르침과 만나다. 오로지 '나무(모)아미타불'이라고 염불을 외는 것만으로 정토에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널리 전하다.

이러한 생각을 달갑지 않게 여긴 사람들에게서 비판을 받다.

1207년(35세) 교토에서 멀리 떨어진 에치고(지금의 니가타현 조에쓰시)로 유배되다.

1211년(39세) 유배가 풀리지만 에치고에 머무르다.

1214년(42세) 이 무렵부터 간토 지역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

1224년(52세) 이 무렵에 주요 저술인 『교행신증』을 거의 완성?

1232년(60세) 이 무렵에 교토에 돌아온 것으로 추정. 많은 저술과 편지를 남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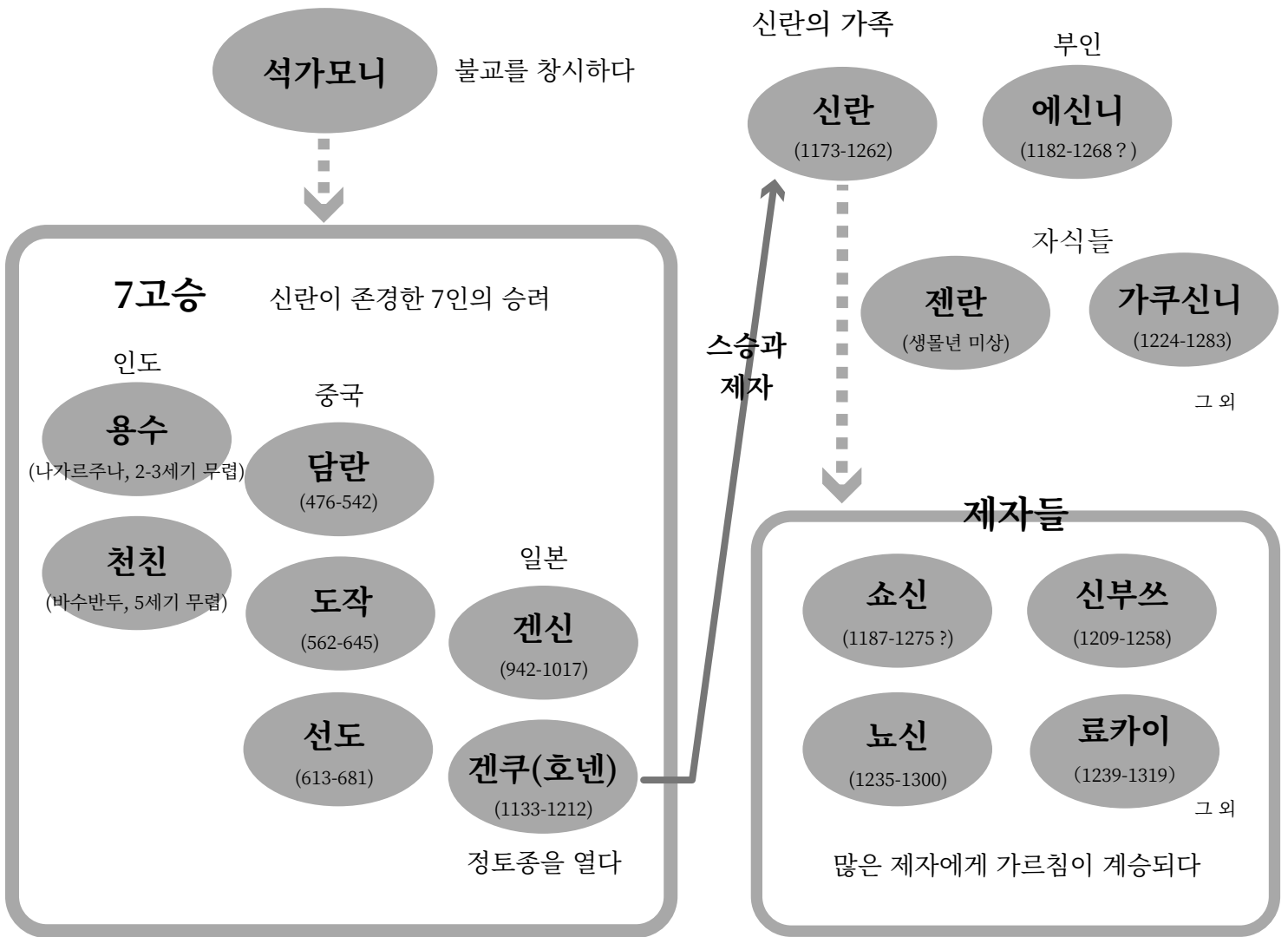
1256년(84세) 신란이 떠난 간토 지역에서 신란의 의도와는 다른 가르침이 퍼지기 시작하다. 아들 젠란을 보내 수습하게 하는데 젠란은 젠란대로 다른 가르침을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신란은 젠란과 부자의 인연을 끊는다.

1262년(90세) 교토에서 입적하다.

1272년 딸 가쿠신니와 제자들이 묘당을 세우고, 이후 이 묘당은 혼간지라는 절로 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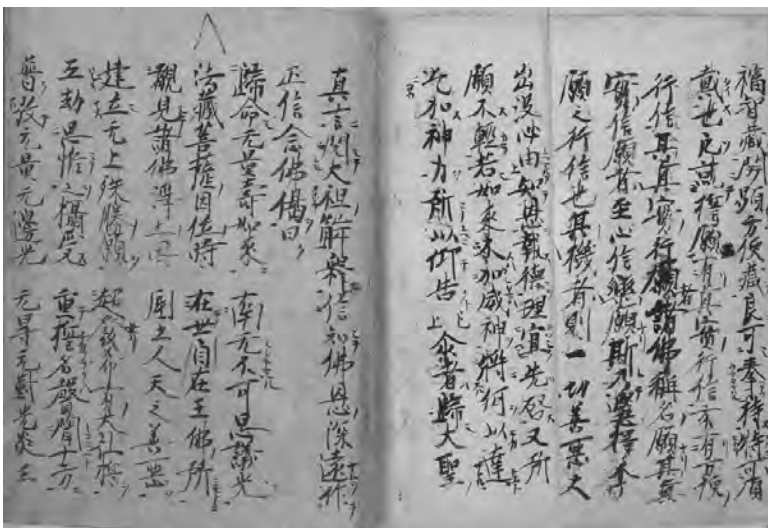
가마쿠라시대

# 신란 스님을 둘러싼 사람들



## 신란 스님이 쓴 『교행신증』※

※ 정식 명칭은 『현정토진실교행증문류眞淨土眞實教行証文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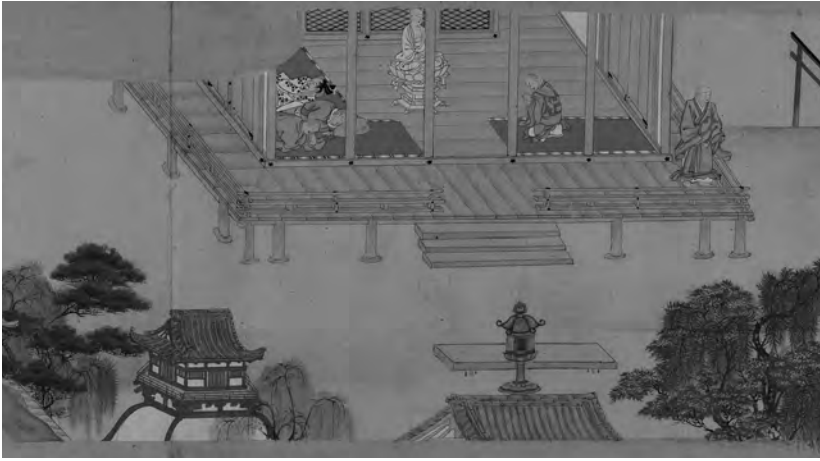
국보 교행신증(반도본)  
신란 씀  
가마쿠라시대 13세기  
교토 히가시혼간지 절 소장  
전시 기간: 3월 25일-5월 21일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작게 글자를  
쓰거나 끝이 뾰족한 도구(각필)로  
자국을 남기는 방식으로 글을 고쳤대!

신란 스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정리해 쓴 책으로, 염불을 외면 정토에 갈 수 있다는 '염불 왕생'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약 60권의 불교 경전과 한문 서적에서 중요한 문구를 모으고 분류해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교행신증』은 제자들에 의해 필사되고 계승되어 정토진종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반도본은 지금 남아 있는 필사본 중에서 유일하게 전해지는 신란 스님 자필본입니다. 여기저기에 문장을 고친 흔적이 있습니다. 신란 스님이 가까이에 두고 몇 번이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신란 스님의 일생을 그린 두루마리그림



중요문화재 신란 전기 두루마리그림[혼간지 쇼닌 덴네, 고에이본, 상권 본] 부분  
가쿠노 썸, 고라쿠지 엔자쿠 그림 남북조시대 고에이 2년(1343)  
교토 히가시혼간지 절 소장  
전시 기간: 5월 2일-5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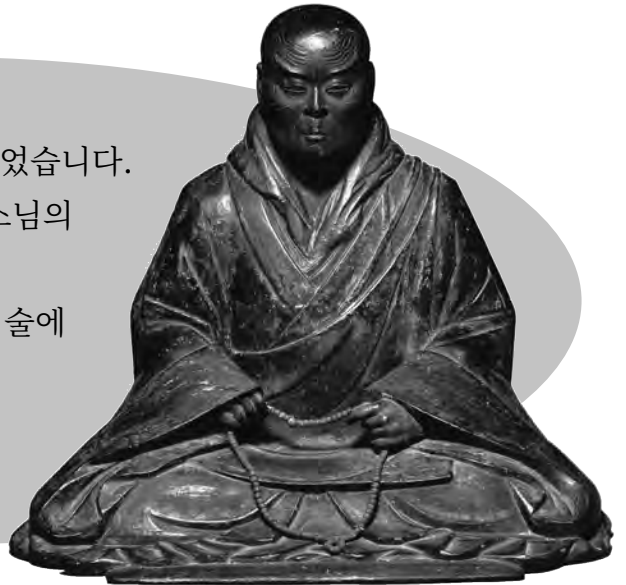
신란 스님이 입적하고 33년 후, 증손자인 가쿠노가 신란 스님의 일생을 담은 두루마리 그림을 제작합니다. 초고본은 전란으로 불에 타버리고 그 뒤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이 두루마리그림(고에이본)입니다.

이 장면은 신란 스님이 룻카쿠도 절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꿈에 구세관음이 나타나 고지를 받았다는 장면입니다. 이 고지를 계기로 신란 스님은 호넨 스님의 문하로 들어가 제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 신란 스님 83세 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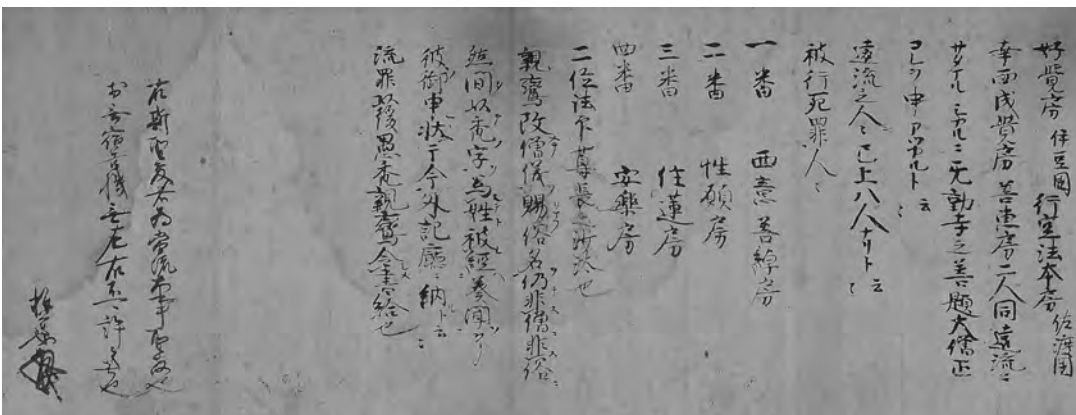
목에 스카프 같은 것(‘모스’)을 두르고 양손에는 염주를 쥐었습니다. 이 좌상은 니시혼간지 절에 전해 내려오는 83세 때의 신란 스님의 초상화 등을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높이 30센티 정도로 작은 크기의 조각상이지만 꼭 다문 입술에 눈썹 끝이 올라가 있어 표정은 날카롭습니다.



신란 성인 좌상  
남북조시대 14세기  
미에 센주지 절 소장  
전시 기간: 3월 25일-4월 16일

## 신란 스님의 법어



중요문화재 탄이초[단니쇼] 하권 부분  
렌노 썸 2권 가운데 1권  
무로마치시대 15세기  
교토 니시혼간지 절 소장  
전시 기간: 3월 25일-4월 9일

『탄이초』는 신란 스님이 설법한 말을 해설한 책입니다. 신란 스님 사후에 신도들 사이에서 신란 스님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생기자 한 제자가 이를 개탄하고 바로잡기 위해 썼습니다.

이 버전은 많은 필사본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신란 스님이 에치고로 유배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